

# 화순에 5년간 3000억 들여 첨단바이오·백신 허브 구축



## 미래산업 메카 떠오르는 전남

### <2>민선 7기 미래산업 현주소

민선 7기 들어 첨단바이오, 우주, 이차전지, 차세대 미래비행체, 첨단세라믹, 친환경연안선박 등 미래산업들과 관련된 연구개발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정부부처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속속 이전하고, 관련 일자리도 생겨나면서 미래산업으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첨단바이오·백신산업, 2026년까지 3000억원 이상 투입-전남도가 국비 985억원을 지원받아 모두 1055억원을 투입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1단계, 2019-2022년, 예산 263억원)와 '백신제 품화기술지원단 운영' (2단계, 2022-2026년, 792억원)은 가장 기대받고 있는 프로젝트다. 화순백신 산업특구에 들어설 센터는 내년 9월 개관 예정으

## 고흥에 드론·차세대 미래비행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사업

### 나주권 이차전지 완제품 거점 광양만권 이차전지 부품 공급기지

### 목포에 세라믹 산업 생태계 조성 친환경연안선박 클러스터 추진

로, K-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특구에 있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30억원을 투입해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320억원으로 오는 2024년 특구 내에 들어설 예정인 바이오헬스 융복합지식산업센터는 2026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공동 연구 장비, AI(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등으로 구성된 '백신기술 산업화 오픈이노베이

션 랩'을 만들게 된다. 이 외에도 전남도는 비교 우위를 가진 천연자원과 산업화 기반을 토대로 2030년까지 전남을 '글로벌 천연물 산업 허브'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실행중이다.

◇차세대 미래비행체는 고흥에서 나온다=비행 시험 구역, 고흥항공센터, 우주항공 첨단소재센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등의 항공(드론)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고흥에서 드론, 차세대 미래비행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관련 프로젝트들이 진행중이다. 198억원을 들인 무인기(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2년까지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 (127억원)이 진행된다. 전국 최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사업' (164억원)은 오는 2023년 마무리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거리 비행 주파수(433MHz) 기반 드론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250억원)도 추진된다. 2022년까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100억원), 2024년까지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장비 구축

사업(295억원)도 각각 예정돼 있다.

◇도내 곳곳에 이차전지 거점 만드는 전남도=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단지, 강소특구 등이 자리한 나주권을 이차전지 완제품, 응용제품 생산 및 기술혁신 거점으로, 포스코케미칼 등 포스코 그룹사, LG화학 등이 자리한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소재 부품 공급기지로 삼을 방침이다. 여기에 서남권을 이차전지 사업화지구로 삼아 8.2GW 대규모 해상풍력과 연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 한전과 협력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 증대를 위한 공공 ESS 확충, 전기선박·e-모빌리티·드론·농업용전동기·플라잉카 등 실증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들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응용제품 생산 및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기틀을 차근차근 마련했다.

오는 2024년 나주혁신산단에 'EV(전기차)·ESS 사용자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 (231억원), 광양혁신산단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233억원) 등이 구축되고, 전남 최초로 (주)엘씨엔에너지솔루션이 2000억원을 투자한 리튬이차전지 공장을 나주혁신산단에 들어설 예정이

다. 여기에 울촌산단의 (주)포스코케미칼 등 포스코는 이차전지 소재분야에 오는 2023년까지 1조 8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첨단세라믹, 친환경연안선박 클러스터 등도 기틀 마련=전남은 목포의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나노융합소재산업 육성(138억원),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250억원) 등을 추진하며 첨단세라믹 산업의 경쟁력을 갖췄다.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 (82억원), '소재산업 스마트공장' (80억원)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전남도는 내년부터 5년간 185억원으로 '첨단세라믹 원료소재 제조기술 고도화 실증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는 2025년 들어설 목포남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연구거점으로 친환경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전남도는 '미래형 친환경연안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450억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415억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7월 친환경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이 함께 산·학·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벼 수확 현장 방문한 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두번째)가 4일 장성군 남면 평산리에서 실시된 2021 벼 수확 현장을 방문, 벼 작황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전남도, 도시재생뉴딜 도전 4곳 모두 선정

### 국비 320억 확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8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남도내에서는 모두 4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20억원을 확보했다.

선정 사업은 ▲담양군 '슬로시티로 함께 사는 창평 달팽이마을' ▲보성군 '걸어서 보성속으로, 젊음의 활력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보성' ▲강진군 '응답하라! 병영 600' ▲영광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영광 뉴트로(Newtro) 재생'이다. 2025년까지 국비 320억원과 지방비 215억원, 부처연계사업비 226억원, 기금 34억원, 민간투자 2억원, 지자체사업 49억원 등 총 847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현장실사·발표평가 등을 통해 후보사업 4곳을 선정했다. 8월 국토교통부의 실현가

능성·타당성 평가와 적격성 검증 등 전문가 평가를 거쳐 후보사업 4곳 모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지역민 삶의 질 개선 및 도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남도는 지금까지 19개 시·군 41곳에서 8097억원이 선정돼 2곳을 완료하고 39곳에서 기반시설 정비, 지역상권 활성화, 정년창업 공간조성 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규 선정된 4곳과 진행 중인 3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의료 헬스케어 차세대 전략산업 키운다

### 3년간 평균 18% 성장 지난해 매출 1조800억

광주시가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차세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4월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에는 모두 519개 관련 기업이 자리를 잡아 4525명을 고용하고 1조828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평균 18.4% 성장세를 보였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2002년 광주테크노파크 타이타늄 특수 합금센터로 시작으로 치과, 바이오, 정형외과, 코스 메디케어, 안과, 치매, 마이크로 의료 로봇 등으로까지 산업 기반이 넓어졌다. 광주시는 2014년 생체 의료소재 부품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 육성해 기존 임플란트 중심 금속 소재 지원을 고분자, 세라믹, 실리콘 등으로 확대했다.

대학,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 제품 개발에서 임상 적용까지 전주기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치매·고령 친화 산업, 화장품 분야도 지원해 2030년까지 기업 2000개를 육성하고, 매출 2조3천억원, 고용 9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의료 산업이 고령화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 활동 개시

### 산학연 16명 구성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는 "지난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법정 기구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 계획 수립, 기술 융합, 기업 지원 등을 심의한다.

공동위원장인 이용섭 시장 등 광주시 관계자와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

두 16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2년 위촉직 임기에 위원회를 이끌어갈 이길행 공동위원장, 전용덕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동안 광주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은 광주 미래 고용과 소득을 책임질 산업 분야"라며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견인하면서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도록 이정표를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튼튼한 지킴이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